

현장시선



임 옹 백
국민연금 제주지사장

제주도민 중 국민연금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현재 매월 연금을 받는 제주도민은 6만7000명이다. 이중 나이가 가장 많은 인은 노령연금의 경우 92세로 27년 9개월간 받고 있다. 또 유족연금은 106세로 11년 8개월간 받고 있으며, 장애연금은 88세로 20년 9개월간 받고 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받는 제주도민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91세로 28년간, 유족연금은 85세로 31년 9개월간, 장애연금은 56

제주도와 국민연금

세로 31년 1개월간 각각 매월 연금을 받고 있다.

참고로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한 후 62세가(2021년) 된 때부터 평생 받고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받으며,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있고,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평생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일까. 그렇지 않고 의외로 간단하다.

먼저, 하루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통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고, 두 번째는 자영업자·농어업인 등은 개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 신청하면 된다. 세 번째는 소득이 없는 학

생이나 가정주부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당연가입이 가능한 만 18세부터 59세에 해당하는 제주도민은 40만5000명으로 64.4%에 해당하는 26만1000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이중 사업장가입자는 15만6000명, 지역가입자는 10만4000명, 임의가입자는 2000명이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한다.

과거에는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아 간 경우 반납해 가입 기간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고, 실업·사업중단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웠던 기간을 추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출산크레딧,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종합설계를 받아 보는 것을 권장한다.

국민연금에서는 제주도민이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등에 대한 진단 및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재무분야는 개인별 맞춤형 재무 설계 및 연금, 보험 등 재무 정보에 대해 상담하고 건강분야는 건강관리, 질병예방, 스트레스 해소법 등 건강실천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여가분야는 평생교육, 취미활동,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노후생활 준비 수준과 유형을 진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노후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를 방문하면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사무실은 도남동 제주지방정부청사 바로 옆에 있으며, 대표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55이다.

사설

국토부 결정 대비, 갈등 해소책 서둘러야

제주 제2공항 갈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심히 걱정스럽다. 도민 여론조사를 계기로 제2공항 갈등이 풀릴 것으로 기대했는데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이후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가 저마다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더욱 우려된다.

제2공항건설촉구범도민연대와 성산읍청년희망포럼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즉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서귀포시, 제주동부지역, 성산을 주민의 압도적인 찬성이 증명됐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정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 주저하지 말고 제2공항 필요성을 국토부에 강력하게 주문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 성명을 내고 “국토부는 도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시 제2공항 철화를 선언하라”고 목소

리를 높였다. 비상도민회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국토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도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빠른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현 제주 국제공항 시설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큰 일이다.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제2공항 갈등이 새로운 국면 전환을 바랐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가뜰이나 어렵게 성사된 제2공항 여론조사가 자칫 무색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도의회에서도 제2공항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제2공항 여론조사에 대한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이 세워지지 않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갈등과 대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주도와 도의회는 향후 국토부의 결정에 대비, 갈등해소를 위한 후속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탄소없는 섬 2030’, 새 전기에 온 힘을

제주를 신재생에너지만을 생산·사용하는 섬으로 만들 ‘탄소없는 섬 2030’프로젝트가 새 전기를 맞을 지 주목된다. 정부가 남아도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타 지방으로 보낼 수 있게 한 분산에너지 대책을 내놓아 관련 시책·산업들에 연쇄적 긍정반응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제주는 그간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잉여전력을 처리 못해 출력제한으로 가동 중단 상황까지 겪으며 ‘2030 프로젝트’추진에 답보상태를 면치 못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제주 탄소없는 섬 2030’ 행사에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정책화를 통해 제주에서 남아도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육지로 전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해저케이블 2개 선로에 역송기능을 넣고, 내년말까지 준공 예정인 양방향 전력 전송 가능 세번째 해저케이블을 통해서다. 더욱이 올해 전력 계통안정화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제주부터 우선 구축토록 하는

방안까지 밝혀 도내 신재생에너지 추가 수용 최대량이 890여MW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도내 과잉전력 문제로 연간 수십회에 이르는 풍력발전 출력 제한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탄소없는 섬 2030’프로젝트 추진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그동안 탄소 저감을 위해 여러 시책들을 펼쳐 왔지만 투자대비 미진한 성과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현 시점에 도내 전력계통 불안정 해소와 관련 신산업 발굴,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매매가능한 ‘전력거래 자유화’ 등의 수도룩한 과제 해결이 관건으로 꼽힌다. 원희룡 도지사가 정부에 ‘분산에너지 특구지정’을 공식 건의한 사유도 관련 현안들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다. 관계기관·부처가 구조적·제도적 문제해결에 힘을 합쳐 제주를 청정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나설 때다.

열린마당

신재생발전 직접 참여



김 기 형
한국전력 제주본부 기획관리실장

한국전력은 민간 주도 개발이 어려운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에 역점을 두고 신재생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에 노력하고 있다.

신재생발전사업에 직접 참여시 전기소비자, 민간 사업자, 한전 주주 등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원인’사업이라 생각한다. 한전의 기술력 및 자금조달 역량 등을 활용한 신재생 발전원이 절감으로 전기소비자는 전기요금 부담 감소, 발전사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 사업자는 사업성이 개선되고 글로벌 동반 진출 기회도 확대될 수 있다.

신재생발전에서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은 대형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 보유 사업자의 참여가 필요한데, 한국전력은 국내외 다양한 풍

력발전사업 경험을 통해 역량을 갖추고 있어 적임자라 할 수 있다. 요르단에서 푸제이즈 발전소(89.1MW)를 단독으로 준공해 2019년 7월부터 상업운전을 하고 있으며, 중국 내몽골과 라오닝성 등에도 원전 1기 용량에 달하는 총 1017MW 규모의 대단지 풍력발전소를 2006년 준공한 이래 10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다.

신재생발전사업 직접 참여에 대해 민간 신재생발전사업자 등이 민간 사업영역 침해, REC 가격 하락을 우려하고 있으나, 한국전력이 직접 참여시에도 발전자회사 및 민간 주도 개발이 어려운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이나 한국전력 보유 기술 활용이 필요한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 및 규모에 대해 정부, 국회와 협의 중이다.

신재생발전 확산 및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투자여력 및 R&D 역량, 사업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 사업 기획 역량을 보유한 한국전력이 신재생발전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소비자, 사업자, 주주 등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뉴스-in

롯데관광개발 불법 주장 속 협상 중재

공사비 미지급 사태 입장 표명

○…롯데관광개발이 공사비 미지급 사태에 대해 유감표명없이 시공업체 4개사가 불법적으로 점거한 후 유지권을 정당히 행사하는 것처럼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 협력업체 비상 협의체’의 옥상점거 농성과 관련, 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3층 점거 시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걱정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언급.

이어 “이번 불법 시위에 대해 법적 대응보다는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을 중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 고대로그자

공직사회 방역 철저 당부

○…최근 공직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제주도의회가 마비되는 등 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 안동우 제주시장이 공직사회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당부. 안 시장은 4일 5급 이상 전 간부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3월 시정시책 공유 회의를 통해 “이같은 코로나19 발생 상황은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조.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각종 정책 추진 시에도 일관성 있는 기조로 행정의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현형하면 민방위 교육대체

○…서귀포시가 4월5일부터 6월27일까지 예정된 2021년도 상반기 사이버 민방위교육에서 현형중서를 제출하면 교육 이수 처리할 방침. 3일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1~4년차 3701명과 5년차 이상 5734명이며, 교육은 기존 집합교육 대신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할 예정.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수급이 어려워 올해 현형에 참여자에 대해 해당 읍·면·동에 중서(사본)를 제출하면 교육 이수 처리하고, 사이버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교육을 진행할 계획. 백균탁기자

부 고

김재원 아버지 순천김공 성배(향년 74세)께서 서기 2021년 3월 4일 10시 1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1년 3월 5일(금요일)
- ▶발인일시: 2021년 3월 6일(토요일) 오전 6시 20분
-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제3분향실
- ▶장 지: 양지공원

딸 김 재 원

재 경

재 민

※ 연락처 : 김재원 010-5210-1807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맛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 중 010-5015-1951

감골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에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귤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 파 농 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락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벽화(건물, 담장) / 인테리어 벽화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